광주·전남 '불량 어린이집' 또 적발

아이들 '돈벌이용' 거래…전과자 직원 버젓이 근무

목포·여수에선 가족 허위 등록 보조금 빼돌리기도

돈 벌이를 위해 아이들을 거래하는가 하면, 전과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불법 행위를 일삼은 광주·전남 '불량' 어린이집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아이들은 '보육 대상'이 아니라 '돈벌이용'이었고 학부모들은 자신들 배를 불리기 위한 '봉'이나 다름 없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알 수 없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집행·관리 실태'에 따르면 여수시 A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2002년 말 다른 민간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원생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매달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B씨는 이후 자신의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원생 60여명을 데려다 줬고 A씨는 그 대가로 자신의 가족을 허위로 취업시킨 뒤 급여 통장을 B에게 건넸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간 1억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어린이를 거래해 자신의 잇속을 챙긴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는 전과가 있는데도, 버젓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도록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아동학대 시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뒤 2년(아동학대 시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북구의 경우 징역 4~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취사부 직원으로 근무한 어린이집이 3곳이나 적발됐고 서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보육교사가 근무하다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 목포에서도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직원이 버젓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질적인 국가 보조금 빼돌리기도 여전했다.

목포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취사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보조금 지급 연령제한(60세)을 넘기자, 그 딸을 허위로 등록해 2010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보조금 4110만원을 챙겼고 서울에 사는 동생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동생 명의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 보조금 2300여만원을 횡령한 목포 어린이집도 적발됐다. 여수에서는 배우자를 허위 등록하거나 직원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수천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 미세먼지 농도 호남권 '약간나쁨' 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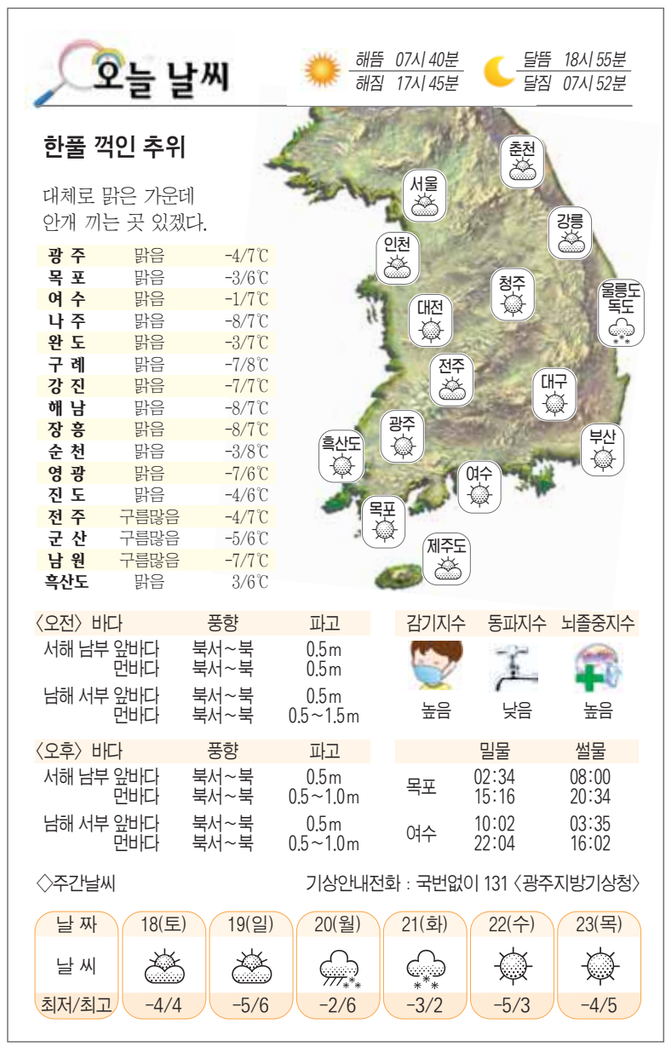
중국 오염물질 유입 탓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7일 미세먼지(PM10) 농도가 호남권에서 '약간나쁨'(일평균 81~120㎍/㎥) 수준을 보일 것으로 16일 예보했다.

환경과학원은 "전날 축적된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오전 중에는 전국적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다"며 "일평균 농도는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호남은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약간나쁨'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전망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나쁨' 수준일 때 노약자는 가급적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환경과학원은 당부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빗자루에 희망이 없는' 지역 대학 청소노동자들

대부분이 한달 최저임금 100만원도 못받아

전남대·조선대만 제외

16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실태 연구팀 '빗자루에 희망을'은 광주지역 5개대학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 4명으로 구성된 '빗자루에 희망을'팀은 지난해 8월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동강대 등 대학교 청소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분석한 실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대, 조선대를 제외하면 한달 최저임금(101만5740원)에도 못 미치는 88만원(광주교대)을 받는가 하면 응답자 중 60% 이상은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작년 4월 용업업무를 시작한 한 대학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낮추고 연장수당을 없애는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했지만 노동자들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란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

학기 초만 되면 교수들 자리 이동에도 동원된다. 교수들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처리해야 할 일을 청소노동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맡고 있다. 손수레나 오토바이에 온갖 책과 물건들을 싣고 옮겨주고 나면 빈 연구실 청소도 당연히 이들의 몫이다.

또 용역사가 청소용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쓰레기 봉투를 씻어서 재활용하기도 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2014 신춘문예 및 제9회 광일문학상 시상식이 16일 오후 광주 KT 빌딩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수상자 윤삼현·서귀옥씨·신항락 광주일보 논설주간·박이수·배세복씨.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예·광일문학상 시상

'금남로 가는 길' 17집 출판 기념회도

'2014년 광주일보신춘문예' 및 '제9회 광주일보문학상' 시상식이 16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빌딩 3층 세미나실에서 수상자와 가족, 광주일보문학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또 이날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 제17집 출판 기념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4년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 박이수(48)씨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시 부문 당선자 배세복(40)씨와 동화 부문 당선자 서귀옥(48)씨에게 상패와 상금 각각 100만원이 수여됐다.

광주일보문학상 아홉 번째 주인공인 윤삼현(62·문산초 교사)씨에게도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광주일보문학상은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의 모임인 광주일보문학회(회장 채희윤)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다.

신항락 광주일보 논설주간은 인사말에서 "한겨울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치열한 문학정신과 감수성으로 무장한 문학인들이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주기를 부탁한다"며 "광주일보는 앞으로도 신춘문예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화순 설 귀성길 앵남 삼거리로 우회

익산청, 연휴 상습 정체구간 전남권 4곳 등 교통안내

"광주방면에서 화순 가시려면 앵남 삼거리 방면으로 돌아가세요."

익산국토관리청이 16일 설 연휴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전남지역 상습정체구간 운행 시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했다.

정체가 심한 화순~보성 구간 중 너릿재 터널 구간은 '광주대~앵남삼거리~능주나들목' 방면이 우회도로로 이용된다.

또 압해~운남 등 전남권 5개소와 삼산~금봉 등 전북권 4개소 등 최근 준공한 도로에 대한 안내를 통해 귀성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익산국토청은 29일부터 2월2일까지 닷새 동안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갈 수 있도록 특별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도로교통정보센터(icmoits.mltm.go.kr)와 전화(063-837-1184)를 통해 국도 및 인근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도로불편이용신고 전화(080-0482-00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단속 비웃는 중국 어선들

서해 불법조업 2척 나포

지속적인 단속에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은 16일 오전 9시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92㎞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선적 200t급 타망어선 민하어 68015, 68016호 등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200t급 대형어선으로 어구 규모가 커 어획량이 많고 촘촘한 어망을 겹겹이 붙인 이중망을 사용, 멸치 80여t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